



어린이날 '사랑나눔' 어린이날인 5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앞에서 아름다운 가게 주관으로 열린 '어린이 베품시장'. 장터를 가득 채운 어린이와 부모들이 집에서 쓰던 갖가지 물건을 진열한 채 팔고 있다. 이익금은 모두 장애아동 돌기에 사용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MB맨들 회전문 인사 현실화 되나

## ■李大통령 이르면 오늘 5~6개 부처 개각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6일 오후 5~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임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영남 출신이거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개각이 4·27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을 수렴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심의 악화를 부르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 전남 출신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교체가 확정적이며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교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보성 출신의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기획재정, 통일, 농림수산식품, 환경, 국토해양부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인선 작

## 핵심 측근 류우익 통일·홍문표 농림장관 유력 이만의 환경 교체 확실·이귀남 법무 불투명 보성출신 임종룡 거론 속 광주·전남 전멸 우려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 교체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통일부 장관에는 류우익 주(駐)중국대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이임식을 하는 류 대사는 주중 대사로서 대북관계 업무를 다뤄온 데다 초대 대통령실장을 했을 만큼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어서 향후 남북 관계를 다룰 적임자로 꼽혀 왔다. 홍 사장은 17대 국회의원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을 맡았고 2008년부터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경력과 인정을 받아 개각 때마다 농림장관 후보로 거론돼왔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는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임종룡 기재부 1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참신한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의 실무를 주도했던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전문 관

료 출신인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이 검토되는 가운데 '제3의 인물'이 영입될 수 있다는 설도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 관리 출신인 최재덕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경쟁자로 거론된다. 법무부장관의 경우 관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만, 이귀남 장관의 교체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각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교체된다면 뒤 오후에 개각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인선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각 발표는 7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빛日만평

- 김중두



지금 그것 볼새가 어디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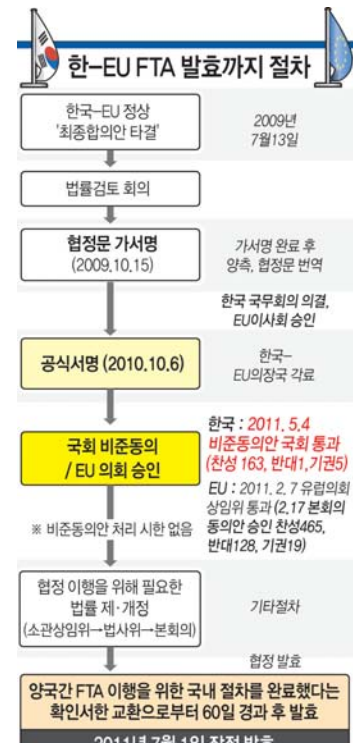
## 국회 비준 '韓-EU FTA' 내용과 전망

# 세계최대 경제권과 무관세 수출입 한국 자동차·TV·섬유·신발 수혜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에 따라 한·EU FTA는 오는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지난 2007년 5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4년 여에 걸친 대장정이 최종 목적지를 눈앞에 둔 셈이다.

이 때문에 양측은 FTA의 조기 효력 발생을 위해 유럽의회 비준동의안으로 FTA가 잠정발효토록 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협정문에 명시했다. 잠정 발효는 공식 발효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문화협력과 지적재산권 행사집행 분야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효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협정의 1%에도 못 미친다.

◇세계 최대 경제권과 무관세 교역=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로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 중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이며, 일부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관시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배기량 1,5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1,500cc 이하 승용차는 5년 이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다. 민감 품목인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서비스 등 경제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 4000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14조 3000억달러)보다도 앞선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다. 또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지난해 92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더구나 EU는 평균 관세율이 5.3%로 미국(3.5%)보다 높은 것은 물론 한국의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수출품들은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돼 경제적 효과를 전 전망이다. ◇잠정발효, 공식발효와 효력 같아=다음달 국회에서 공인회계사



### 한국-EU 교역규모

항목	한국	EU
인구	5천만명	5억명
국내총생산(GDP) 2008년 기준	8천500억달러	18조달러
교역 규모 순위	EU는 한국의 2대 교역 상대	한국은 EU의 8대 교역 상대
수출액 2008년 기준	1962년부터 511억달러 (누적액)	368억달러
투자액	1962년부터 511억달러 (누적액)	511억달러 (누적액)

\*미국보다 많은 한국의 최대 투자 파트너 \*연합뉴스

◇한·미 등 다른 FTA도 속도별 듯=한·EU FTA 체결은 EU 소속 국가 27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FTA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을 제치고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해 유럽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진출 효과가 기대된다.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한·미 FTA 비준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물론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자극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국이 협상 개시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한·중 FTA나 양국 정상이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짓기로 뜻을 모은 한·호주 FTA 등도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진정한 남도의 멋과 자연을 만나는곳 황토골 무안~

무안군 50주년 기념

무안군의회의원 일등

무안 종합병원

병원장 안철수

언제나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무안종합병원

병원장 안철수

초의선사 탄생지 무안군 삼향읍 황산리 343번지

회산 백련지 무안군 일로읍 산정리 892-5번지

오송유 미술관 무안군 삼향읍 황산리 1020번지

신선한 해풍! 게르마늄 황토! 깨끗한 지하수! 무안 황토 양파